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 광 웅¹⁾

조 유 진²⁾

홍 기 목³⁾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한국아동문제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심리적 성장환경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공감능력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 고등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성장환경, 사회적 유능성, 공감능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 사회적 유능성 변인 상호간의 관계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성장환경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공감능력은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여학생 모두에게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심리적 성장환경, 사회적 유능성, 공감능력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 숙명여자대학교, 상주대학 강사

3) 교신저자 : 한국아동문제연구소 놀이치료사, E-mail : memo101@korea.com

I. 서론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 존재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이나 이성관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은 이후 성인기 적응양식의 기본이 된다. 부모 자녀관계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정서발달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데 즉,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확대는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유능성을 시험해 보는 기회를 부여 한다 볼 수 있다.

사회적 유능성이란 개인이 자아를 존중하며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각하는 것이며(Feldman & Grwen, 1998), 또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 확립하고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윤정, 1997).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이해와 주변 상황을 고려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Dodge, 1986).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유능성은 청소년의 발달에 맞게 환경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과,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시켜 주고 적절하게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유능성은 청소년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성 있는 개인은 곧 전체 사회 속에 잘 적응된 개인으로서 중요한 존재 의미를 갖는다(Masten & Coatsworth, 1998).

청소년은 이시기에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 이해 및 통제, 교환, 도움을 주고 받음, 의미추구를 통해 적응, 만족스러움 또는 어떤 목적 달성, 이득을 추구,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 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안범희, 1986). 따라서 청소년은 사회적 유능성을 통하여 주변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유능성이 개인의 적응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보는 것은 교육적, 치료적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첫째, 사회적 유능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 것으로 가정내적 환경을 다룬 것, 둘째, 사회적 유능성이 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밝혀낸 것,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적 기제를 규명해 본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향을 다룬 연구로는 초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고경애, 1984; 노명희, 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공인숙, 1989; 도현심, 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최경순,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경희, 1994), 어머니의 취업여부(안재연, 1992)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도현심(1999)이 부모자녀의 안정된 애착을 한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이나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 분위기가 자녀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김진수, 1990)는 결과는 실증적으로 이들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장휘숙(2000) 또한 부모의 관용과 애정 지향적인

부모양육 기법이 자녀들의 바람직한 사회성장을 촉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유능성이 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이 학업성취(최진승, 박금옥, 박경옥, 1997), 사회적 관계(오현주, 1993; 이선영, 1999; 한상철, 2000), 사회적 인지(노정우, 1989), 청소년 비행(최양숙, 1995)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유능성이 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기의 비행을 예방하는 기제임을 밝혀내기도 하였다(Masten & Coastworth, 1998).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한 연구동향 중 또 다른 흐름은 개인 내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심리적 기제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감능력이다(김미현, 2003; 홍기목, 2005). 즉, 이들 연구는 공감능력이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는데, 김미현(2003)은 사회적 유능성이 대인관계의 필수 요소이며 공감능력과 관련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홍기목(2005) 또한 공감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양육태도, 애착, 상호관계 등의 가정내적 환경요인의 영향력은 이미 밝혀졌고 이들 세분화된 가정요인은 좀더 총체적 접근에서 본다면 가정의 심리적 성장환경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심리적 성장환경이란 가정환경(정원식, 1984)이며 이것은 부모-자녀 심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와 양육방식,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의 상과 부모 자녀 사이의 여러 가지 심리적 관계를 포괄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심리적 성장환경은 문화적·사회경제적·심리적인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행동 발달이나 가치관, 자아개념 등에 영향을 미친다(심웅철, 1992), 또한 물리적 환경 요인보다 심리적 환경요인이 자녀의 성격발달이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오성만 2002).

기술한 것처럼, 심리적 성장 환경은 자녀의 성격과 사회적 유능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해 공감능력이라는 것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변인임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감이란 무엇인가? 공감이란 많은 이들이 어렵듯이 개념화 하고 있겠지만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그리고 내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매 순간 함께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한 복합적인 행동이다. Clark(1980), Eisenberg와 Strayer(1987)등은 대인관계에서 공감은 서로 간에 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촉진작용을 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바탕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매개변인이며,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촉진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사훈, 1998). 그리고 공감은 이타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서기제이며,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Clark, 1980; Eisenberg & Strayer, 1987; Redmond, 1989). 또한 공감능력은 학교부적응과 교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현상을 억제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져(김지현, 2002), 현재 한국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따

돌림을 예방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주기도 하였다. 반면 공감능력이 결핍된 청소년들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입증된 바 있다(Miller & Eisenberg, 1988).

따라서 공감에 충실하고 공감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면 상대방에 대한 지각이 정확해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능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은 대인관계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사회적응력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응과 성취, 이타행동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인성의 변화와 자기성장에 중요한 능력이 된다. 요약하자면, 공감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를 확장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은 안정된 영아-엄마의 애착 관계, 부모의 애정적 보살핌, 긍정적 자아개념, 부모의 권유적 훈육을 바탕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허미화, 1997), 이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김성일, 1998)나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서 대화와 돌봄의 수준이 높을 때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심리적 성장환경을 구성하는 개개의 하위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심리적 성장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공감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의 기반으로서 사회적 유능성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개인 내적 자원인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적 변인과 개인 내적 자원으로 공감이라는 변인을 독립적으로 분석해 본 것으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 즉,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 사회적 유능성의 전후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으로써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하나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은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매개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치료적·교육적인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 적응에 결함을 보이거나 실패를 보이는 집단따돌림 가해자나 피해자,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유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진술한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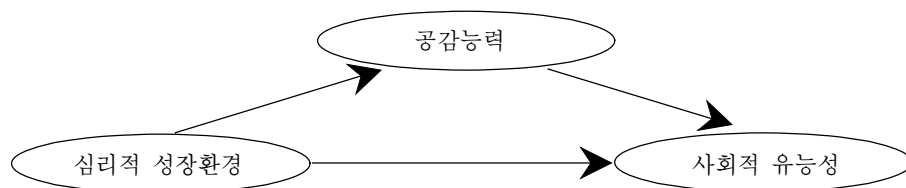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설정함에 있어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는 공감 및 사회적 유능성에 성차를 보인다는 홍기묵(2005)의 결과에 근거에 성별 집단을 구분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심리적 성장환경은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대상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너무 편중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다. 다음, 그 지역내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문조사에 관한 협조를 부탁하였고 최종 수락한 중학교 3개교의 2학년과 고등학교 3개교의 2학년에 재학중인 일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650부에서 27부는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것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633)

변인	구분	N(%)
학생의 성별	남	331(52.4)
	여	300(47.5)
학생의 학교	중학교	342(54.0)
	고등학교	291(46.0)
아버지의 학력	국졸	10(1.6)
	중졸	19(3.0)
	고졸	253(40.6)
	대졸	272(43.7)
	대학원 이상	68(10.9)
어머니의 학력	국졸	10(1.6)
	중졸	41(6.6)
	고졸	334(53.9)
	대졸	205(33.1)
	대학원 이상	30(4.8)
아버지의 직업	무직	12(1.9)
	자영업	113(18.4)
	판매직	48(7.8)
	사무직	215(35.0)
	전문직	225(36.7)
어머니의 직업	무직	348(57.3)
	자영업	72(11.9)
	판매직	35(5.8)
	사무직	66(10.9)
	전문직	86(14.2)

* 무응답에 의해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총 633부의 질문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심리적 성장환경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성장환경 측정

도구는 심응철(1989)이 제작한 심리적 성장환경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용-거부, 사랑-증오, 자유-통제, 의사소통, 존경, 성취, 전통고수,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물질지향 등의 12개의 하위요인,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환경을 전체 문항의 총점으로 긍정적·부정적 환경으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전통고수, 변화지향, 물질지향의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긍정적·부정적 환경의 판단이 모호하다고 사려되어 이들 문항은 제외시켰다. 총 61문항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문항간-전체 상관이 .30 이하인 7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심리적 성장환경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 하였고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성장환경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성장환경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능력 측정은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공감능력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는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누어, 인지적 요소로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영역이 포함되었고, 정서적 요소로는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1994)가 번안한 것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 및 문항이해도도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문항이해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신뢰

도 분석 결과 문항간-전체 상관이 .30 이하인 7개 문항은 제외시켰다. 공감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문항 2, 6번은 부정적 문항이므로 역채점 하였다.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척도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 측정 도구

사회적 유능성 척도는 대인관계의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Reis(1988)가 개발한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ICQ)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상의 오류와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어휘선택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전문가와 관련전공자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ICQ 항목들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청소년이 발휘 할 수 있는 유능성 수준을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하위영역은 상호관계능력, 자기노출, 권리주장 및 불만제기 능력, 정서적 지지, 갈등관리능력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간-전체 상관이 .30 이하인 2개 문항은 제외시키고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유능성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

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50부를 배부하여 225부를 회수하였다. 이중에서 무응답으로 기재하였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213부였다.

본조사

자료 수집은 2004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에게 본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질문지를 수업시간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배부하여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700부이고 이중에서 회수된 질문지는 650부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무응답으로 기재하였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633부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 사회적 유능성 변인 상호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능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 검증에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표 2.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남 $n=331$, 여 $n=300$

성별		1	2	3
남학생	1. 심리적 성장환경	-	.11*	.25***
	2. 공감능력	-	-	.46***
	3. 사회적 유능성	-	-	-
여학생	1. 심리적 성장환경	-	.15**	.26***
	2. 공감능력	-	-	.33***
	3. 사회적 유능성	-	-	-

* $p < .05$, ** $p < .01$, *** $p < .001$

심리적 성장환경, 공감, 사회적 유능성 변인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심리적 성장환경은 청소년의 공감능력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여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1, p<.05$ / $r=.15, p<.01$), 사회적 유능성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25, p<.001$ / $r=.26, p<.001$). 또한 공감능력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6, p<.001$ / $r=.33, p<.001$).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의 상관이 유의한 수준에서 회귀분석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성장환경 요인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할 공감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심리적 성장

환경 요인을 종속변인인 사회적 유능성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심리적 성장환경 요인과 공감능력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남학생, 여학생 각각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인인 심리적 성장환경에서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1, p<.05$), 심리적 성장환경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beta=.25, p<.001$)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44, p<.001$), 심리적 성장환경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

표 3. 심리적 성장환경과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 검증

단계		β	R^2
1 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심리적 성장환경 → 공감능력	.11 [*]	.1
2 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심리적 성장환경 → 사회적 유능성	.25 ^{***}	.6
3 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심리적 성장환경 → 사회적 유능성 2) 공감능력 → 사회적 유능성	.20 ^{***} .44 ^{***}	.25

^{*} $p<.05$, ^{***} $p<.001$

표 4. 심리적 성장환경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아의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 검증

단계		β	R^2
1 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심리적 성장환경 → 공감능력	.15**	.2
2 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심리적 성장환경 → 사회적 유능성	.26***	.7
3 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심리적 성장환경 → 사회적 유능성	.21***	.16
	2) 공감능력 → 사회적 유능성	.30***	

** $p < .01$, *** $p < .001$

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20$, $p < .001$). 그러므로 공감능력은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심리적 성장환경에서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5$, $p < .01$), 심리적 성장환경도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 = .26$, $p < .001$). 또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30$, $p < .001$), 심리적 성장환경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21$, $p < .001$). 그러므로 공감능력은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이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경우 공감능력은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공감능력이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이 심리적 성장환경의 직접적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지지되었다. 즉, 한 개인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긍정적인수록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공감능력을 형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민수(2000)가 보고한 갈등

상황에서 공감의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갈등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대인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한다는 결과나 높은 공감능력은 갈등상황에 대한 평가의 중립화가 가능하며 사회적 갈등에서도 갈등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정창영, 1997)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기 특성상 또래집단이나 이성관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이 시기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이 성인기 적응양식의 기본이 됨을 고려해 볼 때 공감능력은 중요한 개인의 자원이 된다. 타인의 조망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의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때 공감능력은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공감능력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예방 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김지현, 2002)와 관련지어 볼 때 공감능력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대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또한 그러한 경로에서 공감능력이라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적 성장환경의 직접적 영향과 함께 공감능력의 간접적 영향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소외, 외로움 등 청소년기 대인적응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심리사회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유능성이 공감능력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려 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령상, 발달상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가정외적인 환경으로 또래관계나 학교, 교사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고경애 (1984). 모 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은정 (1998).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현 (2003). 공감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사훈 (1998). 대학생의 초기대상관계와 공감능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 발달. 청소년학 연구, 5(1), 21-51.
- 김지현 (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1990). 부모의 자녀양육방법과 내외 통제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 (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우 (1989). 여고생에 있어서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 아동학회지, 20(3), 33-49.
- 박성희 (1994). 공감·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윤정 (1997). 귀인 및 정서인식 능력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응철 (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정체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범희 (1986). 대인관계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연 (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만 (2002).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 (1993). 청소년의 대인 이해력, 일반지능 및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4).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수 (2000). 가족 응집력과 자아분화가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1999).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기표출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 21(2), 141-159.
- 장휘숙 (2000).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원식 (1984). 교육 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정창영 (1997). 조망과 갈등대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양숙 (199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유능성 지각 및 귀인 양식에 관한 비교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승, 박금옥, 박경옥 (1997).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10(2), 95-126.
- 한상철 (2000). 청소년의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협상 전략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 15(1), 25-47.
- 허미화 (1997). 아동의 공감력 발달과 권유적 훈육 방식에 대한 고찰. *초등교육 연구*, 11(1), 171-185.
- 홍기묵 (2005).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lark, K. B. (1980).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 187-190.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Cognitive perspectives o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pp.77-125).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146-16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ldman, S. S., & Grwen, L. K. (1998). Conflict negotiation tactics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high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2), 205-220.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ist*, 205-220.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decentering) in human relation. *Human Relations*, 42, 593-605.
- 1차 원고접수 : 2005. 6. 30.
수정 원고접수 : 2005. 9. 9.
최종 게재 결정 : 2005. 9. 15.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sychological growth and social competence - empathy as a mediating variable -

Kwang-Woong Kim

You-Jin Cho

Gi-Mook Hong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hildren'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growth, empathy and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630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Kyonggi.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psychological growth was positively related to empathy and social competence in male and female students. Second, adolescent's empathy mediated the path from psychological growth to social competence. In conclusion, it shows that psychological growth is direct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soci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growth is indirect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social competence through the medium of empathy.

Key words : psychological growth, empathy, social competence